

일본 방협 회원의 방적 추수 - 2006년에 100만 추를 깨면...

일본 방적 협회 회원사의 방적 시설 운전 가능 추수는 2005년 11월에 121만 7천 추였는데, 닛신보가 2005년 11월에 도야마(富山) 공장을 전면 조업 중지하고 시마다(島田) 공장과 후지에다(藤枝) 공장에서는 시설을 축소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모두 합하면 11만 4,400추가 축소될 예정이다. 최근 수년 동안의 감소 규모를 보면, 2006년에 100만 추를 깨리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코스트 등의 문제로 면방 업계는 일본에서 생산하기 어렵게 된지 오래다. 최근 5년을 돌아봐도 2001년 1월에 227만 9천 추에서 거의 반감하고 있다. 근년에는 생산을 해외로 많이 옮겼고, 상류(商流)의 변화로 일본에서의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섬유 산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새삼 심사 숙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만 지금의 설비 투자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하려는 것이므로 100만 추라는 숫자 자체는 그다지 뜻이 없다. 공장의 존재 방식도 바뀌어, 풀 가동으로 제조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경영 방식을 따르고 있다.

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순발력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설비 규모는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은 상품을 만들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은 가동률이 일반적으로 80% 수준인데, 한산기에 설비를 세워도 이익이 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익률이 높은 상재(商材)를 만들어 내면서, 불량품이나 수정품을 줄이거나 품종 교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시키보의 도야마 공장에 8만 추의 정방기를 돌리기 위하여 그 전에는 12만 추도 돌릴 수 있을 만한 전방(前紡) 설비를 준비하여 밸런스를 맞췄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한 적지 생산, 적지 판매로 상량(商量)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다만 해외 거점도 높은 기술이 없으면, 로컬 공장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들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개발력을 살려 방직업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느냐하는 것이다.

닛신보는 일본 내 생산 시설을 축소하고도 13만 1,700추를 돌리고 있다. 다른 대규모 방직 경영자가 닛신보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일본 내 시설의 규모는 줄었지만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라보는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일본 내 기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내 공장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써 기업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 해외를 포함한 전체 기업 그룹력의 최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된다.

진실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100만 추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수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기술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생산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